

#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

전영준\*\*\* 김준표\*\*\*\*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1. 난민에 대한 태도
2. 난민에 대한 인식
3. 한국인의 난민 인식과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비교
I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주 섬 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 승인으로 2020년 11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제주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540,903명이다. 99%의 신뢰도 수준에서 허용 표집오차  $\pm 5\%p$ 를 설정하여 읍·면·동 별·성별로 5세급간 연령대별로 비례층화 표집틀을 작성하고 읍·면·동지역을 방문하여 무작위 면접으로 설문조사한 표본사례들 중에서 최종 523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99% 신뢰도 수준  $\pm 5.638\%p$ , 95% 신뢰도수준  $\pm 4.283\%p$ ).

분석결과, 난민에 대한 제주도민의 기본 태도는 난민법을 존중하고 준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3627).

\*\* 이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완료하였음(승인번호 JJNU-IRB-2020-004-002).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탐라문화연구원장(in-history@hanmail.net)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cumda.identity@gmail.com)

하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용하지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이거나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난민 유입에 보다 호의적이고, 보수적이거나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은 난민 유입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의 전국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난민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직접 접촉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인식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제도적·적극적인 찬성이 더 커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조사에 비해 제주지역이 난민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차이에 대하여 제주의 콤다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제주, 난민, 난민 인식, 콤다 문화

## I. 서론

타자의 출현은 낯선 것에 대한 불안, 공포, 염려와 함께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나에게 너는 타자이고 너에게 나는 타자이지만, 상호간 타자로서의 인식이 관계를 잉태하고 관계는 우리라는 사회적 틀을 만들어낸다. 2018년 제주 섬에 입국한 예멘 난민은 낯선 타자로 인식되지만, 예멘 난민들에게도 제주 섬은 낯선 타자들의 땅이었다. 예멘 난민들에게 제주 섬은 낯설지만 그래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심정이 컸을 것이며, 제주 사람들에게 예멘 난민들은 새로운 기대 감정보다 낯선 불안의 감정이 조금 더 컸을지 모른다.

타자로 인식되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은, ‘공포라는 실존적 문제가 혐오라는 집단 심리로 드러나는 과정을 해명하고, 공포가 혐오가 아닌 연대와 공감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는’<sup>1)</sup> 것에서 출발하여, ‘경계 밖을 인정하고 무누스(munus)에 노출된 면역(immunitas)에 이르는 길을 여는’<sup>2)</sup> 것이어야 한다. 출발점과 종착역은 분명해졌으

1) 서영표, 「현대사회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혐오: ‘난민’이 문제가 되는 사회」, 『탐라문화』 65, 2020, 142쪽.

니 그 과정을 탐구할 차례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의 구조적 원인을 인식하게 되고 그 구조적 모순을 향해 함께 싸우는 연대가 필요한 시대에,<sup>3)</sup> 난민을 새로 등장한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로 끌어들이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눈 앞의 타자를 살아 숨 쉬는 존엄한 생명으로 대할 때 비로소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간적 가치를 담은 규범이 가능하며 난민이 친근한 타자로서 이웃이 될 것이라고<sup>4)</sup> 계몽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경험해보야 알 수 있다고 한다. 소문으로만 듣던 무서운 푸른 수염 아저씨는 직접 만나 살아보니 다정한 남편이었고, 다정다감한 남편은 알고보니 가족살해를 서슴지 않는 독재자였다고 하지 않는가. 타자로서의 난민 인식과 혐오의 양상들은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달라질 수 있다. 경험하지 못했던 타자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시공간에서 부딪치게 되면 관계의 대상이 된다. 부딪쳐서 경험하지 못했던 난민은 불안·공포·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지만, 부딪쳐서 경험하게 되면 도움을 주고 받을 이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5월 예멘 난민의 집단적 출현 직후인 2018년 6월 당시에 예멘 난민 수용 찬성 24%, 반대 56%, 모름 20%로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난민에 대한 태도가 2020년 11월에는 찬성 33%, 반대 53%, 모름 14%로 달라졌다.<sup>5)</sup> 이 논문을 통하여 난민인식에 대한 시간적 차이와 공간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리서치의 조사는 한국인 1,016명을 표본으로 하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허용 표집오차  $\pm 3.1\%p$ 에서 이루어졌고, 그 중에 강원과 제주에서 추출된 표본은 전체의 4%인 44명이었다.<sup>6)</sup> 예멘 난민들을 직접 경험한 제주 섬의 공간적 차이는 어떠할지 궁금하다.

2) 김치완, 「난민의 출현과 대응에 대한 철학의 문제들」, 『탐라문화』 65, 2020, 69쪽.

3) 서영표, 앞의 글, 2020, 169쪽.

4) 김진선, 「한국 사회에서의 난민 인식의 문제」, 『탐라문화』 65, 2020, 33쪽.

5) 한국리서치,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결과보고서』, UNHCR, 2021, 5쪽.

6) 위의 책, 2-3쪽.

이 논문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난민의 출현과 인식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sup>7)</sup>과 역사적 사례들<sup>8)</sup>에서 한 단계 나아가 난민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을 실제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한국사회의 난민인식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공간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해볼 것이다.

2018년 5월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500여 명의 예멘출신 난민이 들어왔을 때, 대중의 여론과 여론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다수의 언론은 예멘 난민 수용에 우호적이지 않았다.<sup>9)</sup> 예멘 난민의 수용을 반대한 여론 속에는 인종과 문화에 대한 원초적인 편견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것을 바로 잡는 일은 몹시 불확실하고 더딜 수밖에 없으므로, 이 문제를 여론의 흐름이 아닌 보편적인 가치와 근원적인 원리 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sup>10)</sup> 주장이 제기되었을 정도이다. 제주 예멘 난민 반대와 관련한 보도들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슬람을 혐오하는 가짜 뉴스의 양산이었음을 지적하면서, 난민 혐오와 반대가 당연히 규제되어야 마땅하다는<sup>11)</sup> 요청도 있었다. 각국 정상들이 2016년 9월 19일에 합의한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 and Migrants)」의 핵심은 고통 받는 인간에 대하여 인간적인 대우와 생활필수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난민 수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sup>12)</sup> 호소하기

7) 김진선, 앞의 글, 2020; 김치완, 앞의 글, 2020; 서영표 앞의 글, 2020; 김동윤, 「정치적 난민과 월경의 문학: 김시중의 경우」, 『탐라문화』 65, 2020, 75-105쪽; 김준표, 「다문화 사회의 정체성 트러블과 제주의 쿼다 문화」, 『현상과인식』 44-4, 2020, 207-228쪽.

8) 고성만, 「국민국가의 틈새에서-대만2·28사건의 외국인 ‘수난자’를 사례로」, 『탐라문화』 65, 2020, 107-136쪽; 전영준, 「10-12세기 고려의 발해난민 수용과 주변국 동화정책」, 『제주도연구』 55, 2021, 27-53쪽; 장창은, 「삼국시대 ‘난민’의 발생 배경과 동향」, 『한국고대사탐구』 36, 2020, 11-72쪽.

9) 이성욱,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여론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단상-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원리 위에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0), 2018, 122쪽.

10) 위의 글, 128쪽.

11) 정혜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이슬람 혐오와 인종주의」, 『자음과모음』 39, 2018, 237-241쪽.

도 하였다.

2018년 5월 제주 예멘 난민의 갑작스런 집단 출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다. 인권의식을 정립할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개신교 극우파를 포함해 혐오주의를 부추기는 이들이 사람들의 당황한 마음을 온통 휘저어 놓고 한국은 더욱 인권 퇴행적 사회가 되어 한국인 자신도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로 귀결될<sup>13)</sup> 수 있다는 성찰이 시작된 것이다. 2018년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이 1948년 제주를 떠난 수많은 ‘고남도’씨들과 그 간절함과 절박함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는<sup>14)</sup> 사실을 돌아보거나, 1948년 5월 말 제주우체국 화염병 투척 미수 사건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 무인도인 관탈섬에 나흘 동안 대기하다가 밀항선에 합류하여 6월 5일 오사카에 도착했던 4·3항쟁의 정치적 난민 김시중의 시편들을 다시 꺼내들고 정치적 난민과 월경의 문학을 되새기거나,<sup>15)</sup> 삼국시대 난민의 발생 배경과<sup>16)</sup> 고려의 발해난민 수용과 주변국 동화정책을<sup>17)</sup> 더듬어 확인하거나 하는 작업들 모두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성찰적 탐구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명분으로 난민을 반대하는 혐오의 논리와 발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응답함으로써,<sup>18)</sup> 페미니즘 시각에서 차별행동을 성찰하고<sup>19)</sup> 타자와 만나고 연대하는 방법에 대해<sup>20)</sup> 고민하기도 하였다.

- 
- 12) 손영화, 「난민문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난민 수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30(2), 2019, 49-50쪽.
  - 13) 김진호, 「예멘 난민, 인권의식 정립할 기회다」, 『제3시대』, 2018, 4쪽.
  - 14) 하중오, 『제주 예멘』, 2019, 16-17쪽; 류찬열, 「하중오 시집 『제주 예멘』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33, 2020, 244쪽. 하중오 시집의 시적 인물 ‘고남도’씨는 1948년 일본으로 밀항한 제주청년이다. 한국을 떠났던 한국인 난민과 한국을 찾아온 비한국인 난민의 동질성을 보여주고 있다.
  - 15) 김동윤, 앞의 글, 2020, 76-77쪽.
  - 16) 장창은, 앞의 글, 2020.
  - 17) 전영준, 앞의 글, 2021.
  - 18) 김선혜 외, 『경계 없는 페미니즘—제주 예멘 난민과 페미니즘의 응답』, 2019, 6쪽.
  - 19) 위의 책, 192쪽.
  - 20) 위의 책, 175쪽.

하지만 난민들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난민 수용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뿐이다. 특히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집단적으로 밀려들었던 제주 섬의 거주자들, 그렇게 난민의 집단출현과 직접 맞닥뜨려졌던 제주 섬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제주 섬 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 승인으로 2020년 11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 II. 연구 방법

난민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난민을 직접 만났던 제주도민을 인터뷰하여 제주에 살고 있었으나 직접 만나지 못했던 제주도민들의 인터뷰와 비교할 수도 있고, 전체 제주도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추출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양적 데이터로 통계분석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양적 조사 방법을 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프로그램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제주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540,903명이다. 99%의 신뢰도 수준에서 허용 표집오차  $\pm 5\%p$ 를 설정하여 읍·면·동별·성별의 5세급간 연령대별로 비례층화 표집틀을 작성하고 읍·면·동지역을 방문하여 무작위 면접으로 설문조사한 표본 사례는 600명이었다. 표본의 크기와 허용오차에 대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sup>21)</sup>

21) 정대연, 『사회과학방법론사전』, 1997, 840-841쪽.

$$d = K \sqrt{\frac{N-n}{N-1} \times \frac{P \times Q}{n}}$$

$$n = \frac{K^2 \times N \times P \times Q}{d^2 (N-1) + (K^2 \times P \times Q)}$$

N=모집단의 크기

n=표본의 수(크기)

d=허용오차(표집오차)

K=신뢰도 계수 (99% 신뢰도수준 2.58, 95% 신뢰도 수준 1.96)

P=모집단에서 어느 표식을 가진 것의 비율(50%)

Q=모집단에서 어느 표식을 갖지 않은 것의 비율(50%)

P+Q=100%

<표 1> 분석대상 표본의 구성과 모집단 비율

구 분		표본 사례수	표본 비율(%)	모집단 비율(%)
성별	여성	273	52.2	50.2
	남성	249	47.6	49.8
	기타	1	0.2	
	합계	523	100.0	100.0
연령대	19-29세	89	17.0	15.1
	30-39세	87	16.6	15.4
	40-49세	135	25.8	20.8
	50-59세	109	20.8	20.7
	60-69세	59	11.3	14.5
	70세이상	44	8.4	13.5
	합계	523	100.0	100.0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293	56.0	55.2
	제주시 읍면지역	81	15.5	17.2
	서귀포시 동지역	85	16.3	15.2
	서귀포시 읍면지역	64	12.2	12.4
	합계	523	100.0	100.0

<표 1>은 분석대상으로 삼은 표본의 구성과 모집단의 비율이다. 전체 600부의 설문지 중에서 부실한 응답을 필터링하여 최종 523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허용 표집오차는 99%의 신뢰도 수준에서

±5.638%p, 95%의 신뢰도수준에서 ±4.283%p이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표본의 구성은 모집단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며 허용 표집오차 범위 안에 있기에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본의 여성 비율은 52.2%로 남성 비율인 47.6%보다 4.6%p 높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5.8%로 가장 높다. 거주지는 제주시 동지역이 56.0%로 가장 많고 서귀포시 동지역 16.3%, 제주시 읍면지역 15.5%, 서귀포시 읍면지역 12.2% 순이다.

표본의 배경을 따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배경

구 분		빈도	퍼센트
출신지	제주	424	81.1
	도외 국내	94	18.0
	국외	3	0.6
	무응답	2	0.4
	합계	523	100.0
정치 성향	보수적	57	10.9
	중도적	168	32.1
	진보적	148	28.3
	상황에 따라 다름	147	28.1
	무응답	3	0.6
	합계	523	100.0
경제 상황	어려움	286	54.7
	양호함	230	44.0
	무응답	7	1.3
	합계	523	100.0
학력	고졸이하	151	28.9
	대학	305	58.3
	대학원	52	9.9
	무응답	15	2.9
	합계	523	100.0

표본의 거주지와 별개로 출신지역 배경을 살펴보면, 제주도 현지 출신이 81.1%이고, 국내의 제주도외 지역 출신이 18.0%, 국외 출신이 0.6%이다. 정치 성향은 중도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2.1%로 가장 많았고,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28.3%,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10.9%였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28.1%였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상태를 6단계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더니, 1단계 4.0%, 2단계 11.5%, 3단계 39.2%, 4단계 39.2%, 5단계 3.8%, 6단계 1.0%였고, 무응답이 1.3%였다. 1, 2, 3단계를 경제 상황 어려움으로 4, 5, 6단계를 경제상황 양호함으로 구분하면 각각 54.7%와 44.0%이다.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58.3%로 가장 많고, 고졸 이하가 28.9%, 대학원 이상이 9.9%이다.

난민과 난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모두 다섯 문항으로 난민 입국 거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국이 국제난민협약기구 가입국이며 난민관련법 제정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난민법과 난민에 대한 기본 입장이 어떠한지, 난민 수용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역사 속 난민 사례로 어떤 예시를 들 수 있겠는지이다. 역사 속 난민 사례는 서술형으로 응답받았으며 그 외는 기본예시 문항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난민 인식의 측정도구는 난민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16개의 설문항으로 구성하였다. 7점 리커드 척도로 응답하도록 1에서 7까지의 구분선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난민 인식 측정 도구

문항	측정도구
1	난민 유입으로 취업경쟁이 심화되어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다.
2	난민 유입으로 범죄율이 증가될 것이다.
3	내가 사장이라면, 나는 난민을 고용할 의향이 있다.
4	나는 민족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5	나는 종교에 대한 편견이 없는 편이다.
6	난민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난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에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8	난민에 대한 보호는 모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인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9	난민과의 사랑과 결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0	난민은 한 지역에 수용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1	난민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12	난민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13	내가 난민이 되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14	시간과 비용에 문제가 없다면, 난민과 함께 하는 파티나 동호회에 참여하고 싶다.
15	난민은 실제로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생각한다.
16	난민발생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나는 우리나라를 떠나 난민을 신청할 것이다.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한 면접조사원 16명(교수 6, 박사2, 박사과정 2, 석사2, 석사과정 2, 학사 2)의 대면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설문지에 대한 필터링과 코딩을 거쳐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표본은 523명이다.

### Ⅲ.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 1. 난민에 대한 태도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을 분석하기 전에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난민거부 이유에 대한 예상, 난민국제협약 및 난민관련법 인지 여부, 난민 유입과 난민수용에 대한 입장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난민에 대한 기본 태도

		빈도	퍼센트
난민 거부	종교적인 문제	28	5.4
	문화충돌 문제	92	17.6

이유 예상	청년실업 등 내국인 일자리 영향	33	6.3
	난민지원 경제적 부담	104	19.9
	치안문제	240	45.9
	무응답	26	5.0
	합계	523	100.0
난민국제협약 및 난민관련법 인지	알고 있었다	172	32.9
	자세히 모름	235	44.9
	처음 듣는다	115	22.0
	무응답	1	0.2
	합계	523	100.0
난민 유입 입장	난민법을 존중하고 지키면 된다	207	39.6
	난민법 있어도 난민 유입 반대	133	25.4
	난민법 없어도 난민 유입 보호	67	12.8
	잘 모르므로 입장표명 어렵다	114	21.8
	무응답	2	0.4
	합계	523	100.0
난민 수용 심사	전부 수용	18	3.4
	간단 심사 수용	87	16.6
	엄격 심사 수용	386	73.8
	절대 수용 불가	30	5.7
	무응답	2	0.4
	합계	523	100.0

난민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거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45.9%가 치안문제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난민을 지원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19.9%, 문화충돌 문제가 17.6%였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일 것이라는 예상은 5.4%에 불과하였다. 한국이 난민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난민관련법을 제정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9%로, 처음 듣는다는 응답 22.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들어보기는 했지만 자세히 모른다는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다.

난민유입 상황에 대하여 난민법을 존중하고 지키면 된다는 응답은

39.6%였으며, 난민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 유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5.4%, 난민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난민을 유입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이 12.8%였다. 잘 모르므로 입장표명이 어렵다는 응답은 21.8%였다. 난민 심사의 엄격성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 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3.8%로 간단하게 심사한 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 16.6%보다 4배 정도 높았다. 전부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4%, 절대 수용 불가라는 응답은 5.7%였다.

대체로, 제주도민은 난민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39.6%),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용하여야 한다는(73.8%)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 난민 유입에 대하여 심사여부와 상관없이 절대 수용불가하다거나(5.7%), 난민법이 있더라도 반대한다는(25.4%) 강한 반대 의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치안문제에 대한 염려가 해결된다면 난민 유입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sup>22)</sup>

〈표 5〉 난민거부이유예상 교차분석

		종교	문화	실업 일자리	경제적 부담	치안	무응답	
전체		5.4	17.6	6.3	19.9	45.9	5.0	100.0
성 별	여성	4.8	16.1	6.6	21.2	47.3	4.0	100.0
	남성	6.0	19.3	6.0	18.5	44.2	6.0	100.0
연 령 대	19-29세	2.2	12.4	6.7	15.7	59.6	3.4	100.0
	30-39세	2.3	13.8	6.9	20.7	50.6	5.7	100.0
	40-49세	4.4	21.5	4.4	14.8	52.6	2.2	100.0
	50-59세	4.6	19.3	7.3	25.7	37.6	5.5	100.0
	60-69세	15.3	22.0	3.4	22.0	32.2	5.1	100.0
	70세이상	9.1	13.6	11.4	25.0	27.3	13.6	100.0
거 주 지	제주시 동지역	5.5	16.0	9.6	19.5	48.8	0.7	100.0
	제주시 읍면지역	7.4	16.0	2.5	34.6	38.3	1.2	100.0
	서귀포시 동지역	4.7	24.7	2.4	10.6	42.4	15.3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3.1	17.2	1.6	15.6	46.9	15.6	100.0

22) 난민의 치안문제 발생시 국외 추방이 결정되므로 치안문제의 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 신 지	제주	5.9	17.0	6.8	19.1	47.2	4.0	100.0
	도외 국내	3.2	20.2	4.3	24.5	39.4	8.5	100.0
	국외					66.7	33.3	100.0
	무응답		50.0			50.0		100.0
정 치 성 향	보수적	8.8	12.3	1.8	19.3	52.6	5.3	100.0
	중도적	4.2	20.2	8.3	20.8	41.1	5.4	100.0
	진보적	5.4	18.9	4.1	21.6	47.3	2.7	100.0
	상황에 따라 다름	5.4	15.0	8.2	17.7	47.6	6.1	100.0
	무응답		33.3			33.3	33.3	100.0
경 제 상 황	어려움	5.9	16.1	5.6	19.6	48.3	4.5	100.0
	양호함	4.3	19.6	7.4	20.4	42.6	5.7	100.0
	무응답	14.3	14.3		14.3	57.1		100.0
학 력	고졸이하	7.3	15.9	9.3	19.2	39.7	8.6	100.0
	대학	4.6	17.7	5.9	20.0	47.9	3.9	100.0
	대학원	3.8	23.1	1.9	19.2	50.0	1.9	100.0
	무응답	6.7	13.3		26.7	53.3		100.0

<표 5>는 난민 유입에 대해 거부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성, 연령대, 거주지, 출신지, 정치성향, 경제상황, 학력에 따라 교차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치안문제(45.9%), 경제적 부담(19.9%), 문화충돌(17.6%),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6.3%), 종교적인 문제(5.4%)순이다. 성과 출신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전체적인 순서와 다르지 않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치안문제에 대한 염려가 40대 이하에서는 50%를 웃돌지만 50대 이상에서는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문제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부담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다음 순서로 나타났고, 60대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문화충돌이 같은 정도(22.0%)이다. 문화충돌 문제는 40대에서 치안문제에 대한 염려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주시 지역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문화충돌 문제가 치안문제 다음 순서로 확인되었다. 학력에 따른 차이는 대학원 재학이상에서 경제적 부담(19.2%)보다 문화충돌 문제(23.1%)가 높았다.

한편, 정치성향이 보수적일 경우 일자리 문제(1.8%)보다 종교적인 문제(8.8%)가 크다고 예상하였고, 진보적일 경우에도 일자리 문제(4.1%)보다 종교적인 문제(5.4%)가 크다고 예상하였다. 정치성향이 뚜렷할수록 일자리문제보다 종교적인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종교문제(5.9%)와 일자리 문제(5.6%)가 비슷한 정도이나, 자신의 경제상황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종교문제(4.3%)보다 일자리 문제(7.4%)를 더 크게 염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 6>에서 보듯이, 한국이 난민국제협약 가입 국가이며 난민관련법 제정 국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세히 모른다는 경우가 44.9%이고, 알고 있었다 32.9%, 처음 듣는다 22.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신지가 제주도 외 지역일 때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47.9%로 자세히 모른다는 응답 38.3% 보다 더 높았다. 알고 있었다는 응답과 처음 듣는다는 응답은 연령대와 거주지, 출신지 그리고 정치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와 70대 이상이, 거주지별로는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적일 때 처음 듣는다는 경우가 알고 있었다는 경우보다 많았다.

<표 6> 난민국제협약 및 난민관련법 인지여부 교차분석

		알고 있었다	자세히 모름	처음 듣는다	무응답	
전체		32.9	44.9	22.0	0.2	100.0
성 별	여성	32.2	44.0	23.8		100.0
	남성	33.7	46.2	19.7	0.4	100.0
	기타			100.0		100.0
연 령 대	19-29세	21.3	46.1	32.6		100.0
	30-39세	23.0	47.1	29.9		100.0
	40-49세	43.7	36.3	20.0		100.0
	50-59세	40.4	51.4	8.3		100.0
	60-69세	32.2	49.2	16.9	1.7	100.0

	70세이상	25.0	43.2	31.8		100.0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31.1	49.5	19.1	0.3	100.0
	제주시 읍면지역	37.0	40.7	22.2		100.0
	서귀포시 동지역	40.0	41.2	18.8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26.6	34.4	39.1		100.0
출신지	제주	29.2	46.5	24.1	0.2	100.0
	도외 국내	47.9	38.3	13.8		100.0
	국외	100.0				100.0
	무응답		100.0			100.0
정치성향	보수적	28.1	42.1	29.8		100.0
	중도적	31.5	50.6	17.9		100.0
	진보적	39.9	41.2	18.2	0.7	100.0
	상황에 따라 다름	29.3	42.9	27.9		100.0
	무응답	33.3	66.7			100.0
경제상황	하	35.3	43.7	20.6	0.3	100.0
	상	29.1	47.0	23.9		100.0
	무응답	57.1	28.6	14.3		100.0
학력	고졸이하	25.8	47.0	27.2		100.0
	대학	33.1	45.9	20.7	0.3	100.0
	대학원	53.8	38.5	7.7		100.0
	무응답	26.7	26.7	46.7		100.0

난민 유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전체적인 입장은 난민법을 존중하고 지키면 된다는 응답이 39.6%, 난민법이 있더라도 난민 유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25.4%, 잘 모르므로 입장표명이 어렵다는 응답이 21.8%, 난민법이 없더라도 난민 유입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12.8% 순이다. 난민법을 존중하고 지키면 된다는 응답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난민 유입을 허용한다는 소극적인 찬성으로 볼 수 있고, 난민법이 없더라도 난민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적극적인 찬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난민법이 있더라도 난민 유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적극적인 반대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 난민 유입에 대한 입장

		난민법 존중 준수	난민 유입 반대	난민 유입 보호	입장 유보	무응 답	
전체		39.6	25.4	12.8	21.8	0.4	100.0
성 별	여성	35.5	27.8	13.2	23.4		100.0
	남성	43.8	22.9	12.4	20.1	0.8	100.0
	기타	100.0					100.0
연 령 대	19-29세	39.3	34.8	4.5	21.3		100.0
	30-39세	43.7	21.8	11.5	23.0		100.0
	40-49세	43.7	25.2	15.6	15.6		100.0
	50-59세	37.6	24.8	16.5	21.1		100.0
	60-69세	37.3	23.7	11.9	23.7	3.4	100.0
	70세이상	27.3	18.2	15.9	38.6		100.0
거 주 지	제주시 동지역	40.3	27.6	11.9	19.8	0.3	100.0
	제주시 읍면지역	48.1	12.3	14.8	23.5	1.2	100.0
	서귀포시 동지역	38.8	30.6	12.9	17.6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26.6	25.0	14.1	34.4		100.0
출 신 지	제주	38.7	26.4	11.3	23.3	0.2	100.0
	도외 국내	40.4	22.3	20.2	16.0	1.1	100.0
	국외	100.0					100.0
	무응답	100.0					100.0
정 치 성 향	보수적	22.8	52.6	5.3	19.3		100.0
	중도적	43.5	23.2	8.9	23.8	0.6	100.0
	진보적	48.0	15.5	23.6	12.2	0.7	100.0
	상황에 따라 다름	32.0	27.9	9.5	30.6		100.0
	무응답	100.0					100.0
경 제 상 황	하	40.9	27.3	10.5	21.0	0.3	100.0
	상	37.4	23.9	15.7	22.6	0.4	100.0
	무응답	57.1		14.3	28.6		100.0
학 력	고졸이하	25.8	25.8	18.5	29.1	0.7	100.0
	대학	43.6	27.9	9.5	18.7	0.3	100.0
	대학원	51.9	13.5	15.4	19.2		100.0
	무응답	53.3	13.3	13.3	20.0		100.0

<표 7>을 살펴보면,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적극적인 난민 유입 반대가 12.3%로 적극적인 난민 유입 찬성 14.8%보다 다소 낮아 다른 지역에 비해 난민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반대가 52.6%, 적극적인 찬성이 5.3%이며, 중도적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반대가 23.2%, 적극적인 찬성이 8.9%인 반면, 진보적인 정치성향의 경우 적극적인 찬성이 23.6%, 적극적인 반대가 15.5%이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난민 유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난민수용 심사 교차분석

		전부 수용	간단 심사	엄격 심사	절대 불가	무응답	
전체		3.4	16.6	73.8	5.7	0.4	100.0
성별	여성	3.7	17.6	71.8	7.0		100.0
	남성	3.2	15.7	75.9	4.4	0.8	100.0
	기타			100.0			100.0
연령대	19-29세		13.5	82.0	4.5		100.0
	30-39세	5.7	21.8	70.1	2.3		100.0
	40-49세	4.4	20.0	65.9	9.6		100.0
	50-59세	5.5	16.5	71.6	6.4		100.0
	60-69세	1.7	15.3	78.0	1.7	3.4	100.0
	70세이상		4.5	88.6	6.8		100.0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3.8	16.7	73.4	5.8	0.3	100.0
	제주시 읍면지역	3.7	29.6	64.2	2.5		100.0
	서귀포시 동지역	4.7	10.6	80.0	3.5	1.2	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7.8	79.7	12.5		100.0
출신지	제주	2.8	15.1	75.5	6.4	0.2	100.0
	도외 국내	6.4	24.5	64.9	3.2	1.1	100.0
	국외			100.0			100.0
	무응답			100.0			100.0
정치	보수적	1.8	3.5	73.7	21.1		100.0

성향	중도적	1.8	15.5	81.0	1.8		100.0
	진보적	7.4	26.4	62.2	3.4	0.7	100.0
	상황에 따라 다름	2.0	13.6	77.6	6.8		100.0
	무응답			66.7		33.3	100.0
경제상황	하	3.8	14.7	75.9	4.9	0.7	100.0
	상	3.0	17.8	72.2	7.0		100.0
	무응답		57.1	42.9			100.0
학력	고졸이하	2.0	12.6	75.5	9.3	0.7	100.0
	대학	4.3	15.7	75.1	4.6	0.3	100.0
	대학원	3.8	28.8	67.3			100.0
	무응답		33.3	53.3	13.3		100.0
전체		3.4	16.6	73.8	5.7	0.4	100.0

<표 8>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반대가(25.4%) 적극적인 찬성보다(12.8%) 높다고 하더라도,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은 5.7% 정도이다.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은 정치 성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데, 보수적인 경우 절대 수용 불가가 21.1%에 달했으나 중도적이거나(1.8%) 진보적인(3.4%) 경우에는 그보다 크게 낮다. 중도적인 경우는 전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의 비율이 같으며, 진보적인 경우에는 전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7.4%이다. 경제 상황에 따른 차이도 나타난다.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 경제 상황이 양호한 경우(7.0%)가 어려운 경우(4.9%)보다 높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민에 대한 제주도민의 기본 태도는 난민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용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로 보면 자신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이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난민 유입에 보다 호의적이다. 반면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고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은 난민 유입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2. 난민에 대한 인식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측정은 16개의 질문에 대한 7점 리커드 척도로 확인하였다. 16개의 설문항과 각각에 대한 평균 및 일표본 t검정값은 <표 9>와 같다.

<표 9> 난민 인식 측정 도구

문항	측 정 도 구	N	평균	t값	유의 확률
1	난민 유입으로 인해 취업경쟁이 심화되어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다.	522	3.57	45.	.000
2	난민 유입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될 것이다.	520	4.57	62.	.000
3	내가 사장이라면 나는 난민을 고용할 의향이 있다.	522	3.90	49.	.000
4	나는 민족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522	4.37	57.	.000
5	나는 종교에 대한 편견이 없는 편이다.	521	4.79	58.	.000
6	난민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21	5.72	83.	.000
7	난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에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520	5.69	80.	.000
8	난민에 대한 보호는 모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인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523	5.07	65.	.000
9	난민과의 사랑과 결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523	4.38	60.	.000
10	난민은 한 지역에 수용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23	3.75	44.	.000
11	난민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522	4.71	58.	.000
12	난민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520	3.89	51.	.000
13	내가 난민이 되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516	3.63	50.	.000
14	시간과 비용에 문제가 없다면, 난민과 함께 하는 파티나 동호회에 참여하고 싶다.	518	3.68	44.	.000
15	난민은 실제적으로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생각한다.	518	5.21	73.	.000
16	난민발생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나는 우리나라를 떠	517	3.68	46.	.000

라 난민을 신청할 것이다.				
----------------	--	--	--	--

모든 문항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 크론바하(Cronbach)의 알파값이 0.624로 측정도구가 신뢰할 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6개의 문항을 몇 개의 요인으로 묶어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도한 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가 0.859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꽤 좋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민족정체성에 대한 문항 4와 종교적 편견에 대한 문항 5의 공통성이 각각 0.356과 0.216으로 0.4 미만이어서 요인으로 묶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 요인분석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추출하여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로 회전한 성분행렬은 <표 10>과 같다.

<표 10> 측정도구 16문항에 대한 회전된 성분행렬<sup>a)</sup>

문항	성분		
	1	2	3
7	0.836	-0.014	0.027
8	0.771	-0.217	0.161
6	0.754	0.203	-0.107
15	0.690	-0.069	-0.030
11	0.607	-0.444	0.251
9	0.496	-0.393	0.332
5	0.408	-0.029	0.221
2	0.006	0.751	-0.181
10	-0.099	0.731	-0.092
12	-0.028	0.705	-0.101
1	-0.166	0.594	0.257
3	0.318	-0.487	0.354
4	0.341	0.476	-0.116
13	-0.027	0.078	0.780
16	0.049	-0.138	0.660
14	0.284	-0.345	0.618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5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개 문항은 3개의 성분으로 나누어 묶을 수 있으며, 공통성이 낮았던 5번 문항과 4번 문항을 요인 1과 요인 2에서 제외한 후 세 개 요인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값이 요인 1은 0.817, 요인 2는 0.733, 요인 3은 0.590으로 확인되었다. 하나의 성분요인으로 묶기에 요인 1의 변수선정은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요인 2의 변수선정도 적당한 편이나, 요인 3의 변수선정은 다시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0.5 이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은 아니지만, 후속 연구 과정에서 변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요인 1을 '난민 기본권'으로, 요인 2를 '난민 사회문제'로, 요인 3을 '난민 보호 신뢰'로 명명하고 각각의 평균점수와 t 검정값을 확인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수준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t 값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난민 기본권	512	5.13	1.251	0.055	92.824	511	0.000	5.132	5.02	5.24
난민 사회문제	515	3.98	1.245	0.055	72.500	514	0.000	3.976	3.87	4.08
난민 보호 신뢰	512	3.66	1.320	0.058	62.770	511	0.000	3.662	3.55	3.78

난민 기본권, 난민 사회문제, 난민 보호 신뢰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 수준은 7점 리커드 척도에서 각각 5.13, 3.98, 3.66임을 알 수 있다. 요인 1, 2, 3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난민 기본권을 인정하는 제주도민의 인식 정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난민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염려하는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의 정도는 3.66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난민에 대한 반대와 혐오가 주장되었던 배경이 반영된 인식이라고 추측된다.

요인성분에서 제외하였던 문항 4 ‘민족 정체성’과 문항 5 ‘종교적 편견’을 독립변수로 하여 세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민족 정체성 정도는 난민 사회문제에 대하여, 종교적 편견은 난민 기본권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교적 편견이 약할수록 난민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난민 사회문제를 염려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은 다음 기회에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 3. 한국인의 난민 인식과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비교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같은 시기에 한국리서치에서는 한국인의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를 조사하였다. 제주도민의 난민 인식 조사는 2020년 11월 14일~28일이고, 한국리서치의 조사는 2020년 11월 23~30일이다. 제주도민의 난민인식조사는 대면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고, 한국리서치의 조사는 전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웹조사였다.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 제주지역은 강원지역과 함께 묶어 표집되었으며, 강원/제주의 표본은 전체의 4%였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11월의 조사에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33%, 반대하는 비율이 53%이다. 이는 2018년 6월 당시에 예멘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편이었다는 응답 24%와 반대하는 편이었다는 응답 56%에 비해 반대가 다소 적어지고 찬성이 많아진 것으로,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난민 심사와 관련하여 기준을 완화하자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은 23%이고, 난민 심사 요건을 엄격하게 하자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은 52%였다.<sup>23)</sup>

한국리서치의 전국조사와 제주지역조사의 설문항이 일치하지는 않는

다.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관련 문항은 한국리서치 전국 조사가 예멘 난민에 국한하여 2018년 당시의 입장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몰랐고 입장이 없었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편이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편이었다’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현재 난민 수용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입장이 없다’,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편이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편이다’는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반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의 제주 조사는 난민법과 난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으로 ‘난민법을 존중하고 지키면 된다’, ‘난민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 유입에 반대한다’, ‘난민법이 없더라도 난민 유입을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한다’, ‘잘 모르겠으므로 입장표명이 어렵다’라는 4개의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리서치의 전국조사는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구분하여 반대하는 이유의 선택지로 ‘난민을 수용하는데 정부나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큰 것 같아서’, ‘범죄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난민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범죄같은 사회문제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한국에 들어온 난민 중 가짜 난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나 신념을 고수할 것 같아서’, ‘정부가 난민들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잘 대처할 것 같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는 것 같아서’라는 선택지를 제시하였으나, 탐라문화연구원의 제주 조사는 찬성의 이유와 반대의 이유를 나누어 묻지 않고 난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종교적인 문제’, ‘문화충돌 문제’, ‘청년실업 등 내국인의 일자리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염려’,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염려’, ‘치안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선택지로 제시하였다. 두 조사의 질문과 선택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주도민의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전국 수준과 비교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23) 한국리서치, 앞의 책, 2021, 10-11쪽.

우선, <표 12>에서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2018년 6월과 2020년 11월의 시점을 기준으로 반대가 50%에서 53%로, 찬성이 29%에서 33%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는 2018년 6월의 조사와 2020년 11월의 조사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20년 11월의 조사에서 2018년 6월 당시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질문항으로 비교한 것이기에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찬성의 격차가 1%p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표 12〉 난민 유입 찬반 비교 (%)

전 국(한국리서치, 2021: 25; 33)			제 주	
선택지	2018.6	2020.11	선택지	2020.11
잘모름 입장없음	22	14	잘모름 입장표명 어려움	21.8
반대하는 편	50	53	적극적 반대	25.4
찬성하는 편	29	33	적극적 찬성	12.8
			난민법 존중 준수	39.6

제주도민의 난민에 대한 태도는 난민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면 된다는(39.6%) 다수 입장을 중심으로 난민법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25.4%) 입장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12.8%)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반대하는 편이지만 난민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면 된다는 입장을 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난민법 존중과 준수를 찬성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제도적인 찬성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의 경우 반대는 25.4%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전국 조사의 50%이상 반대와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인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59%), 범죄 등 사회문제(54%), 문화 및 종교적 충돌(46%), 일자리 영향(21%)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제주도민의 경우 한국인들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이유로 치안문제(45.9%), 경제적 부담(19.9%), 문화 충돌(17.6%), 일자리

24) 한국리서치, 앞의 책, 2021, 31쪽.

영향(6.3%), 종교적 문제(5.4%)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국 조사는 복수 응답이었고 제주 조사는 단수응답이었음을 감안할 때 수치보다는 순서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민은 치안문제를 경제적 부담보다 크게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인은 사회문제보다 경제적 부담을 크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영향에 대한 염려는 전국 조사와 제주 조사 모두에서 큰 반대의 이유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수준의 한국리서치 조사와 제주지역 조사에 대한 비교 결과, 난민 수용의 입장에서 제주도민은 일반적인 한국인과 달리 반대의사가 적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난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담보다는 치안문제를 더 크게 염려하고 있었다. 내국인의 일자리에 끼치는 영향은 전국 조사와 제주지역 조사 모두에서 그 우려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 결국 난민에 대한 인식은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처럼 시간적 변화에 따라 찬반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제주지역 조사 결과처럼 공간적인 차이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난민에 대한 제주도민의 태도와 인식은 일반적인 한국인의 태도와 인식에 비교하였을 때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난민 유입에 대하여 제도적인 찬성이라고 볼 수 있는 ‘난민법을 존중하고 지키면 된다’는 입장이 39.6%이고, ‘난민법이 없더라도 난민 유입을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 찬성이 12.8%로 이 둘을 합하면 52.4%이다. 반면 ‘난민법이 있더라도 난민 유입에 반대한다’는 적극적 반대는 25.4%였다.

전국 조사와 제주 조사에서 공통적인 것은 예멘 난민의 집단적 유입 이후 2년 여의 시간이 난민에 대한 인식을 호의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예멘 난민의 집단적 유입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접촉에 의한 인식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제주지역의 공간적 정서가 육지와 달리 전반적으

로 외지인의 유입에 대하여 큰 반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에서 세 가지의 함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난민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타자에 대한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포·불안·혐오에서 점차 벗어난다. 함께 살아갈 우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직접 접촉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인식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제도적·적극적인 찬성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이는 낯선 타자를 불안하게 인식하는 문제가 접촉의 경험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의 공간적 차이를 제주 섬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 수 있겠다. 제주 섬 사람들은 외지인을 적극적으로 환대하지 않지만, ‘드르쌍 내불멍’(신경 끈 채 가만히 내버려두면서), ‘드르콥양’(포용하고 품어안아), 함께 살아간다.<sup>25)</sup> 난민에 대한 제주도민의 기본적인 태도와 인식이 한국인 일반에 비해 훨씬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이질적인 개별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게 되는 제주 사람들의 콧다 문화<sup>26)</sup>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 가지의 함의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은 함께, 직접 접촉을 통해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보았는데,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난민 현안 이슈가 사그러들면서 무관심과 거리두기로 인해 도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이 간과되었음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차이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식될수록 문제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원인, 제주의 문화적 고유성, 외지인에 대한 호의성 또한 반대로 제주의 문화가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라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이 특징으로 부각되었던 선행연구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향후 제주지역의 이주와 다양성 및 차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충분

25) 김준표, 앞의 글, 2020, 219-223쪽.

26) 위의 글, 220쪽.

히 검토하고 보다 심화된 후속연구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남겨둔 셈이다.

설문조사 초기 설계과정에서 보다 꼼꼼하게 전국 조사와 비슷한 수준의 문항을 정리하지 못한 점과 측정도구의 변수들을 보다 풍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은 이 논문의 분명한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멘 난민의 집단적인 유입을 직접 경험했던 제주도민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거칠게나마 전국 조사와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인분석에서 성, 연령대, 거주지, 출신지, 정치 성향, 경제 상황, 학력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허락된 지면 분량을 핑계로 하더라도 아쉬운 한계임이 분명하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심화시킬 것을 다짐해둔다. 그리고 제주에 머물렀던 예멘 난민들이 제주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하는 학문적 호기심 역시 다음 연구 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고성만, 「국민국가의 틈새에서-대만2·28사건의 외국인 ‘수난자’를 사례로, 『탐라문화』 65, 탐라문화연구원, 2020.
- 김동윤, 「정치적 난민과 월경의 문학: 김시종의 경우, 『탐라문화』 65, 탐라문화연구원, 2020.
- 김진선, 「한국 사회에서의 난민 인식의 문제, 『탐라문화』 65, 탐라문화연구원, 2020.
- 김치완, 「난민의 출현과 대응에 대한 철학의 문제들, 『탐라문화』 65, 탐라문화연구원, 2020.
- 김선혜 외 36명, 『경계 없는 페미니즘-제주 예멘 난민과 페미니즘의 응답』, 서울: 와이온, 2019.
- 김준표, 「다문화 사회의 정체성 트러블과 제주의 콧다 문화, 『현상과인식』 44-4,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0.
- 김진호, 「예멘 난민, 인권의식 정립할 기회다, 『제3시대』 135,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2018.
- 류찬열, 「하종오 시집 『제주 예멘』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33,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0.
- 서영표, 「현대사회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혐오: ‘난민’이 문제가 되는 사회, 『탐라문화』 65, 탐라문화연구원, 2020.
- 손영화, 「난민문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난민 수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30(2), 한양법학회, 2019.
- 이성욱,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여론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단상-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원리 위에서, 『한국콘텐츠학회지』 18(10), 한국콘텐츠학회, 2018.
- 장창은, 「삼국시대 ‘난민’의 발생 배경과 동향, 『한국고대사탐구』 36,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 전영준, 「10~12세기 고려의 발해난민 수용과 주변국 동화정책, 『제주도연구』 55, 제주학회, 2021.
- 정대연, 『사회과학방법론사전』, 서울: 도서출판 백의, 1997.

정혜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이슬람 혐오와 인종주의」, 『자음과모음』 39, 자음과모음, 2018.

하종오, 『제주 예멘』, 서울: 도서출판 b, 2019.

한국리서치,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결과보고서』, UNHCR, 2021.

ABSTRACT

## Refugee Perception of Jeju Islanders

Jeon, Young-joon \*

Kim, Jun-pyo \*\*

This paper analyzes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Jeju Islanders' perception of refugees conducted in November 2020 with the approval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The population of the survey was 540,903 men and women over the age of 19 living in Jeju. By setting an allowable sampling error of  $\pm 5\%p$  at the 99% confidence level, a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frame was created for each 5 years age group by gender in each eup, myeon, dong area. And a random interview was conducted by visiting the eup, myeon, dong areas. The final 523 cas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llowable sampling error of  $\pm 5.638\%p$  at the 99% confidence level,  $\pm 4.283\%p$  at 9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basic attitude of Jeju residents toward refugees is to respect and comply with the refugee law and accept it through strict screening. The class who thought their political inclinations were progressive or their economic situation was difficult was more favorable to the influx of refugees, and the class who thought their political inclinations were conservative or their economic situation was good responded more sensitively and actively opposed the inflow of refugees. Compared with the nationwide survey of previous

---

\*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studie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erception of refugees was changing favorably with the passage of time, and that the recognition of refugees through direct contact increases institutional and active support more than unconditional opposition. And also the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was suggested that the Jeju islanders influenced by Cumda Culture of Jeju are more favorable to refugees than the general Korean.

Key-words: Jeju, refugees, refugee perception, cumda culture

논문투고일 2021. 6. 10.

심사완료일 2021. 7. 12.

게재확정일 2021. 7. 23.